



1월 18일



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어요.
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.
어떤 것이 있을까요?



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세요.
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알 수 있어요.



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나요?

네, 맞아요.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.

그러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
알 수 있을까요?



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지요.
놀이터에서 뛰어 놀 때도, 유치반에서 말씀을 배울 때도
장난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 보고 계세요.
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죠.

생각하는 아이

하나님이 누구실까요?

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대요. 그가 첫 번째 사람 아담이에요.

아... 하나님께서
만드셨구나!



친구와 찰흙놀이를 했어요. 나는 엄마, 아빠를 만들었고요,
아람이는 얼마 전에 태어난 동생을 만들었어요.

"아람아, 그거 알아?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어."

"하나님? 하나님이 만들었다고? 하나님이 누구야? 어디 있어?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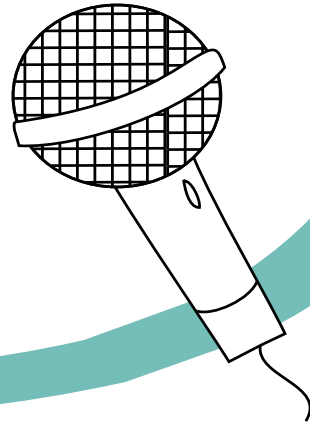
아람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할까요?
남우는 선생님께 궁금한 걸 여쭙어 보기로 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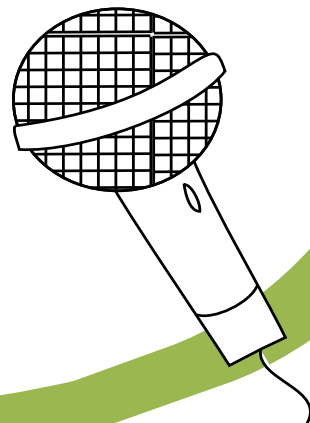
생각하는 아이

나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?
또 내가 아는 사람들은 어떤가요? 인터뷰를 해 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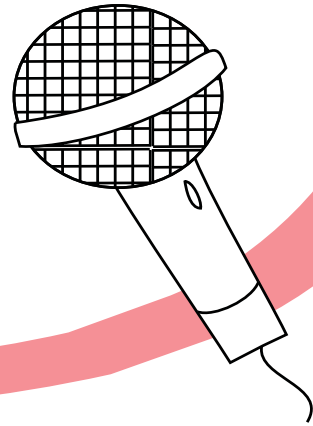
내 생각을 이야기 해 보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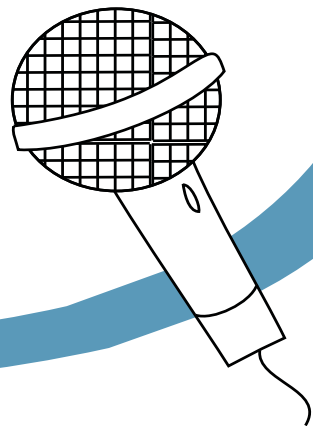
부모님에게 물어 보세요.



교회학교 선생님께 물어 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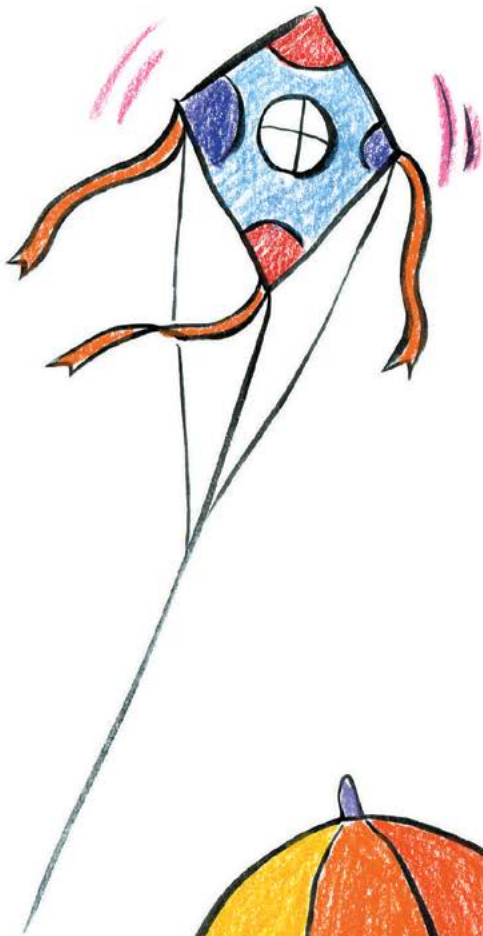


친구들에게 물어 보세요.



즐거움 활동등

공기가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에요.
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에
○표 해요.





마음속 암송

따라 쓰기

아무 사람도
보지 못하였고
또 볼 수 없는 자이니
디모데전서 6장 16절

다시 쓰기

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선생님께

부모님께